



꿈쟁이 작은도서관

#광주 광산구 #시설공사비 지원

문화전파소 꿈쟁이 작은도서관

8,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꿈쟁이 작은도서관은 매년 500여권의 양서를 지속적으로 추가 구비하며, 12명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년 중 함께 운영하여 문화전파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꿈쟁이 작은도서관은 초, 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찾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책이랑 꽃이랑 교환행사, 도서관 봉사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마당, 꿈쟁이 영화제,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체험행사, 나눔 장터 등을 엽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소통과 공동체의식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꿈쟁이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단장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긴급지원119 지원비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완공하기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원봉사자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공사 이후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도서관 정리를 마치고 축배를 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멋진 도서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공사 전



▲ 봉사자들과 함께 했던 공사 과정



▲ 공사 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많은 이용자가 다녀갔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인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과 꽃 교환행사’를 개최하여,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에 100여명의 이용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광산구청의 배달강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보드게임이랑 놀자’ 프로그램과 성인들에게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참여자 모두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및 꿈쟁이 작은도서관 자체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공사 후 꿈쟁이를 찾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설이나 환경이 훨씬 좋아졌고, 활용도가 증가했으며, 이용자들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에 따라 평균 이용자 수도 5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설 환경의 변화가 곧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관심 증대 및 도서관 이용률의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의 보충과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제반 시설 확충은 매우 양호해졌으나, 추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기자재 확충은 거의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의 보완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꿈쟁이 작은도서관에는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십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지던 도서관자원봉사(현재 12명)를 이제는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면접을 봐서 선발해야 하고, 그 대기자도 줄을 서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그 만족도가 매우 커 역시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그 출석률도



꿈쟁이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100%에 가깝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행사가 있는 날이면 동네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관심도도 높고 참여자가 많습니다. 이런 높은 참여와 관심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하는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진행했던 문화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꿈쟁이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년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문화 체험의 장이 되려고 합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마을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확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아름다운 도서관이 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작은도서관 일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나아져가는 환경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서관이 좋아서 이사를 못 간다.'와 같은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함도 더하게 되고, 뭔가 일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내 자신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